

주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64호 / 주간 9호

2024. 2. 28. (수)

·발 행 인:이윤선
·제 작:(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02) 829-7575
FAX:(02) 718-8565

목 차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더 많이 환급받는 요령과 계산이유	표지
C E O 에 세 이	자이언트 빌 게이츠의 예언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4
	- 유통기한 지난 식품 회계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 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계좌	5
	- 교통비 지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문의 - 취득시기 문의	
눈에맞는 절세미인	해외부실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24.1.1.부터 적용)	8
	-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9
직장인Survival	다수결과 만장일치를 경계하라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문의 (서면국제세원-2594, 2023.03.17)	11
	-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법인-5631, 2023.08.18)	12
세정뉴스와 해설	R&D세액공제 사전심사...신성장·원천기술 기업 우선 지원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된 해외게임에 대해 개발사에게 지급하는 구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안됨	11
세무정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세요	14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22
	-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안) 의견을 듣습니다	23
	- 부처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27
회계정보	- 2023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41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기본 방향 나왔다	46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 환율	20

자이언트 빌 게이츠의 예언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오래전 ‘자이언트(Giant)’라는 할리웃 영화가 있었다. 1956년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가 제작한 영화다. 희대의 미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호남 록 허드슨 그리고 반항아적 매력의 사나이 제임스 딘이 주연을 맡았다.

텍사스의 대 농장주 빅 베네딕트는 레슬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 이 틈에 카우보이 제트 링크는 레슬리에 대한 짝사랑을 키워간다. 제트 링크는 빅의 누이가 유산으로 준 조그만 땅 황무지에서 석유가 쏟아지면서 와신상담 억만장자 석유왕이 되지만 레슬리에 대한 열정은 깊어만 간다. 영화 개봉을 2주일 앞두고 제트 역을 맡았던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기에 더욱 센세이션을 했다. 광활한 텍사스 농장을 배경으로 쇠퇴하는 농장의 부와 석유를 통한 새로운 부의 출현 속에 러브스토리를 믹스한 1950년대식 블록버스터였다.

미국 ‘윌스트리트 저널’지는 지난 1천년간 수많은 황제, 상인, 발명가, 사업가 중 최고의 갑부 50인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천년간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극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말했다.

밀레니엄 초기의 갑부들은 국가통치자이거나 정복자였다. 불세출의 정복자 칭기스칸(1162-1227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천연자원과 특산품 등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비잔틴 제국의 바실2세(958-1025년), 앙코르와트 왕국의 창업자 수르야바르만 2세(?~1150년)도 국가 통치자였다. 피렌체의 아메데오 데 페루치(?~1303년)는 무역을 통해 번 돈을 다른 상인들에게 대출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20세기 인물로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1835-1919년)와 석유왕 존 록펠러(1839-1937년) 그리고 헨리 포드(1863-1947년)가 거부였다. 현대는 빌 게이츠(1955~)가 부의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카네기는 1901년 미국 철강시장의 65%를 지배하는 US스틸사를 탄생시켰다. 이후 카네기 멜론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하면서 부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록펠러 역시 1882년 미국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하는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조직했다. 그러나 1911년 미국 연방최고재판소로

부터 반(反)트러스트법 위반으로 해산명령을 받고 해체되었다. 그 후 그는 자선사업에 몰두했다. 포드는 1913년 조립라인 방식에 의한 양산체제를 확립한 후 1924년에는 시장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1936년에 설립된 포드재단도 교육진흥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현대는 미국의 달러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다. 표준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표준에는 ‘공적 표준(De Jure Standard)’과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이 있다. EU의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와 미미한 신경전도 있지만 달러는 명실공히 막강한 세계의 통화 결재수단으로 팩스 아메리카나의 골격이다. 세계 모두가 달러 때문에 울고 웃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빌 게이츠는 MS사의 회장 겸 CEO(Chief Executive Officer)다. ‘소프트웨어의 황제’, ‘세계 최고의 갑부’, ‘소프트웨어업계의 악마’, ‘독점 사업가’, ‘최대자선사업가’ 등 찬사와 비난이 함께 따라 다니는 그는 현대 IT혁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지구촌 반수 이상의 인류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점에서 그는 정복자다. 당시 지구의 반 2억 인구를 지배한 칭기스칸보다 더 막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성공에는 세 가지 혁신이 뒷받침됐다.

첫째, 무겁고 큰 하드웨어보다 작고 가벼운 소프트웨어가 승리한다는 신념의 실천이 있었다. 당시 거인 IBM과의 거래가 그랬다. 둘째, 단기적 이익보다 인기(표준화)를 중요시했다. MS의 소프트웨어를 헐값으로 장착시켜 당시 소프트웨어업계의 폐쇄적 관행을 깨버렸다. 셋째, 기술보다 장기적 사업 모델과 장래 시장수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전개했다.

미국 법무부가 몇 해 전 “소비자들의 권리를 우선 고려해 MS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세기의 재판으로 알려진 시장독점을 둘러싼 US vs MS 소송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그가 얼마나 독점적으로 시장의 이익을 획득하고 또 얼마만큼의 재산가라는 화제거리도 그의 엄청난 기부활동과 미국식 시장경제 논리에 파묻힌 것이다. 오로지 오늘날 IT산업의 화두가 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그의 ‘예언’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